



‘웃’을 소재로 한 나혜원 작가의 설치 작품 등 6명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강하미술관 ‘2021 Space&Museum 우주와 미술관’ 전.

우주 탐색, 예술 탐색과 닮았네

이강하미술관 ‘우주와 미술관’ 전 28일까지...필리핀 작가 등 6명

방은겸 작가의 작업 주제는 ‘애플 셔틀(Apple Shuttle)’이다. 반짝이는 재료를 활용해 화면 가득히 그린 거대한 사과 모양의 조형물은 우주와 지구, 해, 달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 주변에 배치된 작은 사과들은 태양계(큰 사과) 주위를 도는 행성으로 서로 유영하며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다.

작가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구현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작가들이 꾸려놓은 각각의 ‘소우주’를 통해 관람객이 상상하는 자신만의 세계를 꿈꾸보는 우주정거장같은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기획이다.

지난해 ‘2020 Earth&Museum 지구와 미술관’을 개최했던 이강하미술관이 존재와 의미를 확장, 올해는 ‘2021 Space&Museum 우주와 미술관’ 전(28일까지)을 기획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점검하고 예술의 의미와 관

점을 새롭게 탐색해 보는 전시다.

전시를 기획한 이선 큐레이터는 이동형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 화성에 착륙하는 등 ‘미래’를 향한 인간들의 시도와 노력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가능성을 무한탐색하는 예술과 닮아 있다고 봤다.

공모를 거쳐 초청한 작가는 필리핀 작가 인디 파라데스를 비롯해 김용원·나혜원·박인선·방은겸·장철원 등 모두 6명이다.

독일과 담양에서 활동하며 히키코모리같은 관계 부재를 경험한 나혜원 작가는 ‘한 사람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한 사람만의 고유 공간’인 ‘웃’을 작업의 소재로 삼은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울리는 캐비닛-Cabinet’은 아주 작은 종이 달린, 한지로 만든 웃이 주인공이며, ‘연결시리즈 NO.5 번신’은 자신의 웃을 이어붙이고, 해체해 새로운 ‘무한한 가

능성’을 만들어냈다.

인디 파라데스 작가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페이스 마스크가 웬지 우주인이 사용하는 헬멧의 전면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코로나 시대, 필리핀의 일상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코로나 치료를 받는 환자가 착용한 인공호흡기 소리를 녹음한 작품을 헬멧 모양의 모니터로 보여준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박인선 작가는 파장을 일으키며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응집과 이완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어머니의 젖줄처럼 생명을 잉태시키는 ‘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김용원 작가는 아크릴 판넬 위에 레이스를 일일이 붙여 만든 독특한 풍경 그림을 천정에 걸어 연결시킨 작품 ‘Unknown Landscape-부유하는 감정의 파면’ 등의 작품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월요일 휴관,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시 해설. 문의 062-674-8515.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코로나 이전 상태로의 되찾음

미디어338, 9월 10일까지 미디어 아트전...이승연 작가 등 참여

코로나 확산, 기후 위기 등 오늘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앞만 보고 달려온 탓에 점점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류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회복을 이야기하는 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디어338 유네스코 비전 연계 릴레이 전시 ‘Recovery: 미래적 회복’이 그것. 이번 릴레이 전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도시 광주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기획됐으며 9월 10일까지 미디어338에서 진행된다.

사전적 의미의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찾음’을 의미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2명의 아티스트는 김안나, 이승연 작가로 이들은 기후와 날씨, 환경 등을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예술형식으로 표현한다. (첫번째 전시는 김안나 작가가 ‘Beyond Human’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전시는 이승연 작가의 ‘재난의 시대, 몽상 판타지’가 펼쳐진다. 작가는 과거를 토대로 미래 이야기를 전하는 작업에 초점을 둔다. 드로잉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는 이번 작품 ‘기후재난 낙원몽’에서 향후 닥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를 작가 특유의 개성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도 같은 기간에 진행된다. ‘Jump into the Sky’는 전시기간 관람객들의 메



이승연 작 ‘기후재난낙원몽’

시지를 모아 그림과 퍼포먼스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다. 완성된 작품은 오는 9월 중 하늘에 애드벌룬으로 띄우는 퍼포먼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광주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번 전시 기록영상을 업로드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료 관람이며 사전예약제 실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오후 5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일·월 휴관 문의 062-670-745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애들아, 바닷물은 왜 짭까?

ACC 음악극 ‘거인 앙갈로’ 9월 4~5일 어린이극장

바닷물은 왜 짭까?

바닷물이 짠 기원을 설명하는 어린이음악극이 관객을 찾아온다. 한국과 필리핀 민담을 결합한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에 초점을 맞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오는 9월 4~5일 ACC 어린이극장에서 ‘거인 앙갈로’를 공연한다.

작품은 필리핀 민담 ‘바닷물은 왜 짭까?’와 우리나라 전래동화 ‘소금을 내는 맛돌’ 이야기를 열개로 만들었다. 필리핀 전통악기와 유

사한 악기를 사용하고 필리핀 민요 ‘오르데-에’를 편곡, 주요 주제곡으로 활용했다.

공연은 거인 앙갈로와 두 사람의 우정, 이기심을 얘기한다. 짧은 대사과 리듬감을 살려 집중도를 높인 덕분에 영상과 움직임, 의상의 조화가 눈에 띈다.

‘거인 앙갈로’는 ‘2020 아시아 스토리 어린이 콘텐트 제작사업’ 일환으로 창·제작한 어린이공연이다. ACC는 앞서 지난 6월 ‘개굴개굴 고래고래’를 선보였으며 오는 12월 ‘라울의 땅’, ‘아기코끼리 도트’를 무대에 올린다.

관람권은 전석 1만원. 관람권은 ACC 누리집과 콜센터(1899-5566)에서 4일부터 예매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작가-전문가 매칭 사업 이강하미술관 선정

김주연·권승찬·조정태·김설아 참여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역미술관과 공유하기 위해 전국국·공립미술관 협력망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미술관 추천작가-전문가 매칭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5개 미술관을 선정했다.

광주에서는 이강하미술관이 선정됐다. 미술관은 지난해 ‘2020 지역 미술관-신진작가 발굴’ 프로젝트에도 선정돼 설악·김자이·정택용·김유승·이조흠·하도훈 작가가 참여한 전시 ‘불가능을 통해 약속된 가능성’전을 광주와 서울 스페이스 9에서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설아·권승찬·조정태·김주연 작가.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하는 작가들에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의미가 있다. 자신의 작품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평론가들의 시각과 함께 타 지역 전문가들의 ‘또 다른’ 시선을 접할 수 있다면 작업 구축에 도움이 된다.

이강하미술관은 올해 인터뷰, 연구 및 포트폴리오 자료를 통해 다양한 장르와 연령대의 광주 지역 작가 4명을 선정했다.

식물로 이루어진 의상 등을 활용한 사진과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김주연 작가는 이윤희 수원시립미

술관 전시과장과, 권승찬 작가는 박동기 성남아트센터 전시팀장과 매칭이 됐다. 또 조정태 작가와 김설아 작가는 각각 김종길 성남아트센터 전시팀장과 마동은 대구미술관 전시팀장과 짝을 이뤘다.

미술관은 워크숍을 통한 작가 연구와 전문가의 평론글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최종 결과 공유회에서 공유한다. 평론글은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결과 자료집으로 제작돼 전국에 배포되며 하반기 이강하미술관에서 결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